

# 전북도 모든 출연기관, 임대료 인하

### 3월부터 출연기관 입주기업 292개소 대상 임대료 30~50%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 적극 동참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이 이달부터 기관 내 입주한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일제히 인하하겠다고하면서 민간 부문에서 확산되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달 초, 현 시국 대응을 위해 출연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최근 장기간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기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로 모두 15개 기관이 있으며, 이 중에서 기관 내 입주기업이 있는 곳은 9개 출연기관으로 총 307개의 기업, 상가, 기관 등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그 중 지자체시설, 정부기관, 퇴거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292개소가 이번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기관별로 최소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이고, 인하율은 30% 이상으로 많게는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전북테크로파크는 3개월간 124개소 30% 인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개월간 64개소 50%, 자동차융합기술원은 3개월간 35개소 30%, ECOM융합심우연구원 3개월간 7개소 30%,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3개월간 35개소 30%, 군산의료원 3개월간 2개소 35%, 남원의료원 3개월간 1개소 35%,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6개월간 2개소 30%,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4개월간 22개소

35%를 인하하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9개 기관의 총 인하여액은 1억8천2백여만 원으로 총 임대료(5억5천1백여만 원)의 33% 수준이다.

전북도에서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임대료 인하 방침을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 시·군으로 확산, 공공부문부터 실천 수범하여, 이미 민간부문에서 확산되어 왔지만 나누는 지역문화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주는가 하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방침을 세우며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고조시킨 바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일부 기관에서는 임대료의 다수를 입주시설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 같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준 기관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임대료 일부 인하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렇듯 함께 나누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위기 극복의 날도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 “팬데믹 선언, 큰 위협... ‘희망의 힘’ 필요”

### 文대통령, “방역 당국과 의료진 너무나 잘해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큰발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면서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이어 “그로 인한 세계 경제와 우

리 경제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희망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기승을 부리는 불안 바이러스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해주고 계신다”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두들 지치지 말아야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특별입국절차 11개국으로 확대

### 佛·獨·英·스페인·네덜란드 15일부터 적용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을 방문한 국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포함해 11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되며,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유급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직

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주일 동안(4~11일) 유럽 주요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프랑스의 확진자는 일주일 간 130~1402명으로 약 10.8배 증가했으며, 독일은 196~1139명(약 5.8배), 스페인은 150~1024명(6.8배)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개국에서 입국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뉴시스

## 전주시덕진구선관위 사전투표관리 교육 실시

### 16일 사전투표시스템 운용요령 중심으로 진행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6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장비담당사무원 등 30여명 대상으로 사전투표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 모의시연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설비,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시스템 운용요령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사전신고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덕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코로나19 극복,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소외계층 위문품(성금) 전달식이 1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김두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지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 정세균 총리 “WHO 팬데믹 선언... 해외유입 차단 과제 생겨”

### 2차 전문가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해외유입 차단 과제가 생겼으며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정 총리는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했다”며 “더 긴장해 국내 전파를 막는 건 기본이고 이탈리아, 다른 유럽 국가들, 이란,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해외유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까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요양원, 콜센터 같은 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나 중대본으로서 굉장히 긴장해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다시 원위치 된 건 불행 중 다행이다”라면서 “전문가들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병실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다”며 “정부로서 전문가 말씀 잘 듣고 대응하면서서 코로나19와 잘 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에 심보균 전 행안차관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제6대 원장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심 전 차관은 지난 9일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심 원장은 “30여년 간 공공행정 분야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우수한 행정시례를 전 세계에 확산 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 공고 제2020-593호

##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명: 전주대대 이전사업  
나. 위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  
다. 면적: 313,772.7㎡  
라. 사업내용: 통합생활관, 병사/간부식당, 위병병회소, 간부숙소 등  
마. 계획수립기관: 전주시  
바. 승인기관: 국방부
- 공람기간 및 장소**

구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20. 03. 13. ~ 2020. 05. 12.(40일간, 공휴일·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환경과
	익산시 중포면사무소
	완주군 환경과
정보통신망	전주시/김제시/익산시/완주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추후 공고**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공람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20년 5월 19일까지)  
나. 제출내용: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등  
다.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로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신도시사업과(063-281-2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전주시장

익산시 공고 제 2020-783호

##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1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286번지 일원  
○ 사업규모: 294,281㎡  
○ 사업시행자: 익산시  
○ 승인기관: 익산시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0. 3. 13. ~ 2020. 4. 9.(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4523  
익산시 삼성동행정복지센터(☎063)859-3894
- 설명회 개최 및 장소**  
○ 일시: 2020년 3월 26일(14:00~15:00)  
○ 장소: 익산시 삼성동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
- 의견제출**  
○ 장소: 공람장소와 동일  
○ 방법: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각 공람장소에 비치) 제출  
○ 의견제출대상: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의 주민  
○ 의견제출범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기타**  
○ 상거사항은 익산시(http://www.iksan.go.kr)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